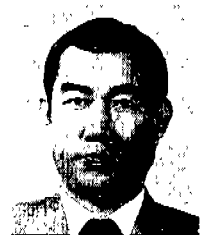


농촌마을 생활환경 정비의 과제와 방안

권 순 국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



우리의 선조는 2,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벼농사를 배경으로 풍요로운 농경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동안 농민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산림, 하천, 도로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따라서 자연과 일체가 된 생활을 영위해 왔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고도의 산업화에 따라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되어 도시의 환경이 큰 문제가 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생활환경에 관련되는 사회간접자본이 도시에만 투입되었기 때문에 농촌의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되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은 도시 지역의 모방이 아닌 산림, 농지, 수변(水邊) 등 풍요로운 자연과 생태계를 활용한 지역의 독특한 방법이 요구된다. 최근 자연환경에 대한 농촌의 여러 가지 역할이 높이 평가되어 식량 생산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야외교육이나 레크리에

이션의 장소, 수자원이나 국토보존 등의 여러 가지 역할에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의 발전과 농촌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지켜나가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도시는 분명히 매력적인 곳이다. 그러나 도시는 그 자체만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도시는 식량이 필요하고 쉴 장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는 구할 수 없다. 즉 도시는 반드시 배후에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자연의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대상지역은 산악이나 산림을 제외한 주거가능지면적의 90%를 차지하며, 환경과 인간의 활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극심한 도시집중화의 외증에서 농촌의 푸르름과 물로 둘러싸인 경관의 가치를 점차 높게 보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농촌의 좋은 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편리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즉, 자연 속에서 도시의 편리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공간에 안전한 생활도구가 배치되고, 물고기가 뛰노는 수변과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상하수도는 완비되고, 농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여러 가지 유기물은 순환되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생산·생활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면 농촌마을은 그 자체로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도시인에게도 좋은 휴식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 근교에 위치하는 농촌에서는 도시화(혼주화)가, 이와는 반대로 산촌에서는 과소화가 진행되어,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농촌의 경관은 황폐되었고 여러 가지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며, 따라서 그 동안 집중적으로 생활환경 정비를 실시한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이 오히려 열악하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농촌사회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의 생활환경이 나빠진 큰 원인은 농촌 환경에 대한 그 동안의 무관심과 방치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태계와 경관을 포함하는 농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선 몇 가지 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농업의 근대화정비에 따른 변화이고, 두 번째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변화이며 그리고 기타 농촌개발에 따른 변화가 있다. 농업의 근대화에 따른 변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리시설의 근대화에 따른 변화, 포장정비에 따른 변화,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변화, 농

업의 화학화에 따른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농촌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건축양식과 건축재료의 변화, 연료의 혁명, 생활용구의 플라스틱화, 상수도의 보급, 합성세제의 보급, 수세식 변소의 보급, 자동차의 보급 등이 있다. 끝으로 농촌개발에 따른 변화는 인공조림의 확대, 도시적 시설(아파트, 농공단지)의 지방분산, 관광개발의 지방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가전제품이 보급되므로서 농촌에서도 에너지의 소비량의 대폭 증가 되었으며 자동차의 보급은 도로건설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농촌의 구석구석까지 개발의 손길을 뻗쳐 농촌경관이나 토지이용을 크게 변모시켰다. 대부분의 농촌에서 “토끼몰이 하던 산”이나 “송사리 잡던 시내”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연환경과의 균형이 깨트리지므로서 생긴 것으로 자연 환경과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환경의 창조가 필요하다.

예로부터 인류는 식량의 생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자연과 싸워서 농지를 개간하고 물을 다스려 자연을 정복하는 한편 자연의 혜택을 이용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꾀하여 왔다. 만약 인류가 자연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현재의 인류번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촌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에 대응하면서 농업생산환경, 농촌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룬 농촌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농촌환경을 보전, 정비, 개선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농촌환경의 창조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농촌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앞으로 전개하여야 할 사업은 대개 3가지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둘째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셋째는 농촌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농지보전관리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에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국토의 보전관리 등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농촌의 생활환경정비는 수변, 푸르름의 보전, 농촌마을 상하수도 정비, 경관이나 환경의 보전 등 일하기 쉽고 살기 좋으며 도시인에게도 열려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의 실현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환경, 농촌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농촌환경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현재의 환경파괴가 인간의 과도한 번영과 낭비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농촌환경의 보전이란 결국 환경으로의 배출부하 감소, 유용자원의 재활용, 미이용자원의 활용, 자원절약 등의 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촌환경의 개선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편리성이나 쾌적성은 뒤떨어지지만 그 대신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계절별로 바뀌는 자연경관 등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교류가 기대되는 곳이다.

농촌환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

이 농업생산이나 생활활동을 해오면서 조금씩 만들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다. 지금부터라도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이 농촌이 가지는 환경의 혜택만을 목표로 실천된다면 곧바로 환경파괴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어 농촌환경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의 주요어(主要語)는 “사람과 자연의 공생”이 될 것이며 20세기가 과학기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시대라 할 수 있다.

농촌환경은 정비 후에도 지역주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계획작성의 단계에서부터 정비 후의 이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는 빠트릴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많은 농촌지역은 현재 도시 근교에서는 혼주화가 이루어져서 주민의식이 다양해지므로서 주민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농산촌에서는 과소화 또는 고령화 때문에 주민의 활동능력이 낮아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과거의 실적이 많이 있으나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은 거의 없었다. 도시의 상하수도, 도로, 공원조성, 경기장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꼭 같은 이념으로 농촌에도 환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이 농촌주민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국민전체에 파급되는 것이므로 정부도 이러한 이념과 철학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농촌환경개선에 대한 지역별 관리방법이나 체제의 확립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